

모아상담소

2024.여름호

사 단 법 인 . 한 국 아 동 발 달 연 구 소



한국아동발달연구소



목 차

1. 인사말 – 모아맘보육재단 운영본부장 이지영
2. 연구소 프로그램 소개 – 교직원 집단교사코칭
3. 사례공유 – 친구들을 무는 아동
4. 책소개 – 누가 뭐라든 너는 소중한 존재
5. 연구소 프로그램 후기 – 용성아희뜰 원장 장주희
6. 연구소 협약기관 안내
7. 연구소 프로그램 비용 안내
8. 한국아동발달연구소 위치 및 연락처



인사말

모아맘보육재단 운영본부장 이지영

안녕하세요. 모아맘보육재단 운영본부장 이지영입니다.

녹음이 짙은 것을 보니 여름이 돌아왔나 봅니다. 더운 날씨에도 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원장님과 선생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장애통합반이 있었는데 어떤 부모님도 그 반에 대해 언급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장애아동이 있으면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생활하는데 어렵지는 않을까? 같은 반 부모님의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저의 작은 호기심에 장애통합반에 다니고 있는 지인의 자녀에게 물어보았어요.

“너희 반에 혹시 선생님이 힘들어 하는 친구가 있니?”

“아뇨. 없어요.”

“그럼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니?”

“아~ 우리보다 느려서 기다려줘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밥 빨리 먹는 애가 도와주면 돼요.”

아이들에게 그냥 같은 반 친구인 걸, 장애아동이라는 틀도 어른이 만든 시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어른이 되어서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아동발달연구소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모아맘보육재단과 한국아동발달연구소가 함께 행복한 아동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이지영 올림

나와 타인을 위한 ‘긍정의 말’

긍정의 말 1

네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긍정의 말 2

한번 시도해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 테니까

긍정의 말 3

네가 생각해 낸
아이디어는
매우 창의적이었어!

긍정의 말 4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 자신을 믿어봐
넌 할 수 있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나와 타인에게 긍정의 말로 행복을 선사하는 멋진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연구소 프로그램 소개 : 집단 교사코칭

한국아동발달연구소 소장 문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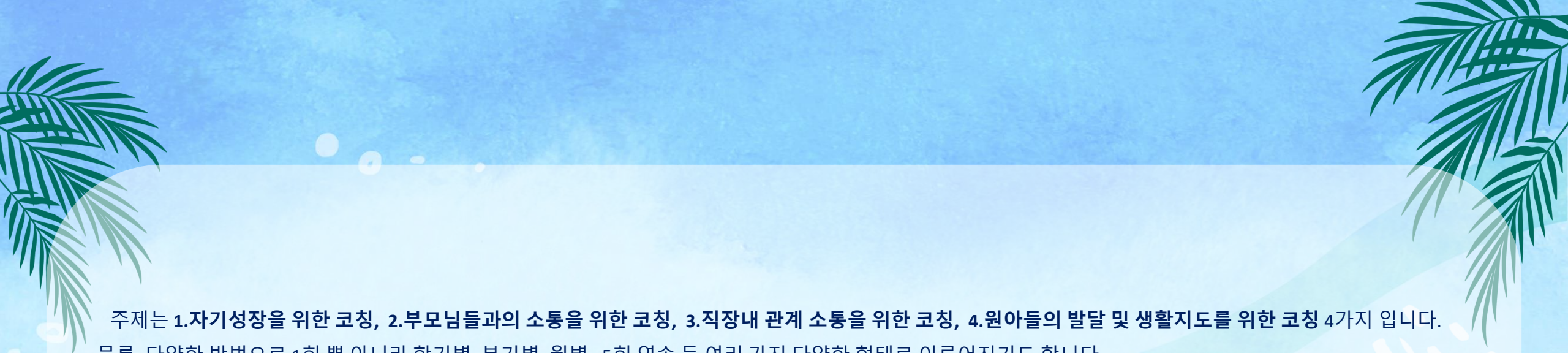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우리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교직원을 위한 프로그램, **‘집단교사코칭’**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단교사코칭은 교사들을 위한 교사들에 의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집단상담은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참여한 집단원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이나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심리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집단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단교사코칭을 통하여 교사들은 전문가로서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위치의 교사들과 공유하며 집단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통찰하고, 동료 교사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일시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을 하는 동안,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감정과 느낌을 공감하기도 하고, 타인의 피드백을 통하여 **통찰, 투사, 자기수용, 자기 정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상생활에서 교사인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일상에서의 개인으로서의 모습이 안정되고 중심을 잡고 보육현장에서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각 어린이집 교사들 (6명 이상부터 최대 20여명 미만)의 인원이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어린이집의 한 공간에 둘러앉아 집단 교사코칭에 참여하게 됩니다. 연구소 프로그램 신청서에 원에서 필요한 주제 4가지가 안내되어 있으니 그 중 코칭 받고 싶은 주제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제는 **1.자기성장을 위한 코칭, 2.부모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코칭, 3.직장내 관계 소통을 위한 코칭, 4.원아들의 발달 및 생활지도를 위한 코칭** 4가지 입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1회 뿐 아니라 학기별, 분기별, 월별, 5회 연속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집단상담전문가와 교사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현재 본인의 개인적 어려움, 직장 내의 어려움, 또는 과거의 어려움 즉, 무의식에 있는 감정이나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대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상담에 참여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바람직한 태도나 행동, 의사 표현 등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행 과정 중에 일어나는 문제나 역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집단 교사코칭에 대한 안내를 마치며 끝으로 우리 재단과 연구소를 신뢰하고, 보육 현장의 아동, 학부모, 교사를 위하여 애정과 열정을 쏟으시는 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관찰사례 공유 - 친구들을 무는 아동



한국아동발달연구소 소장 문수경

이번 호에는 아동관찰, 교사코칭, 부모상담을 진행하며 만난 친구들과 교사를 여러 차례 무는 아동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개인정보보호와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사적인 내용들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내용의 일부 각색이 이루어졌음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Q. 친구들과 선생님을 물었어요 / 만3세 우빈이 이야기

선생님이 생각하는 우빈이는...

- ☞ 명확한 원인제공 없이 공격적인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 친구들이나 교사를 물거나 때렸을 경우, 그들의 표정이나 감정을 살피지 않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 ☞ 발달이 또래보다 늦어요
- ☞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으며, 대소변에 대한 변의를 표현하지 않아요
- ☞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 ☞ 교실 이곳저곳을 서성거려요
- ☞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엉뚱해요

연구소 전문가의 아동관찰 후 견해

- ☞ 아동의 머리 스타일(일반적이지 않음)이나 옷차림(계절에 맞지 않음)이 다른 아동과 다름
- ☞ 아동이 눈 맞춤을 피하고 손잡았을 때 뿌리침
- ☞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 위주의 놀이(공룡놀이와 공룡이야기)에만 치중함
- ☞ 아동의 표정이나 행동이 불안정해 보이고 주위의 눈치를 살핌
- ☞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등 상호작용이 안됨
- ☞ 안절부절하는 모습 많음

사랑받고자 하는 아동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불만이 많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래 친구들을 공격하는 행동적, 정서적 어려움을 보임

교사와 원장님께 드리는 Tip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아동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아동과 이야기할 때, 교사와 눈 맞추고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세요
아동이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으로 아동의 욕구를 채워 주세요
아동의 긍정적인 작은 행동이라도 격려하고 지지(하이파이브, 악수, 손가락 약속)해 주세요
불안한 모습인 경우, 아동의 기분을 묻고 그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주세요
또래 아동들과 물리적인 거리를 두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Tip

가정에서 아동과 있을 때, 아동의 무는 행동에 대해 아동의 이야기를 듣고, 명확하게 제한을 주세요

아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해서 채워주고, 아동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부모님의 태도에 일관성 있는 보살핌이 필요해요

아동에게 부모의 편안하고 긍정적인 스킨십(안아주기, 등, 머리 쓰다듬기, 손잡기)을 통해 안정감을 주세요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언어표현, 배변훈련)을 제 시기에 습득하게 해 주세요

아동이 보호받는 상황에서 편안한 소수 또래와 친근한 관계 경험을 자주 갖게 해 주세요

아동의 기분을 행동이 아닌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부모님과 함께 연습하며 도와주세요

무는 행동의 원인으로는

부모님의 성향 및 가정환경 분위기, 부부관계와 연관 있어요

‘불안정애착’으로 인한 정서적 결과와 관련 있어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해서 불안하고 불만스러운 아동의 잘못된 표현 방식이에요

가정에서 아동이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을 간과하는 경우, 아동은 그 부정적인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숙면, 포만욕구, 편안함의 욕구, 관심 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동의 무는 행동에 대한 원 방문 아동 관찰과 부모 상담을 마친 후...

최근, 어린이집에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사까지 무는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경우, 불안과 공포감으로 어린이집 등원을 꺼리고, 수면 중에 악몽으로 놀라서 우는 아동도 있어, 부모님들의 걱정도 많아지고 원의 이슈가 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교사도 성인 임에도 아동에게 물려서 두렵고, 특별한 대처방안이 없는 상황이라 더 어렵습니다. 한편 또래 아동들은 불안감으로 무는 아동을 피하거나 놀지 않으려고 하고, 행위 아동은 그런 친구들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자아존중감 저하로 이어져 불만스러워 다시 무는 행동을 하는 악순환 반복됩니다. 이처럼 아동의 무는 행동은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성 발달 지연과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사회정서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적, 정서적인 문제 행동입니다.

아동의 정서적인 어려움이 대부분 그렇듯 증상 이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므로 다각적으로 아동의 환경 변인 특히 가정의 분위기,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부모의 양육 패턴과 애착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빈이의 무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어린이집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연구소에 도움을 청하였고, 원방문 아동관찰과 교사 코칭, 부모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방문 과정에서 특히, 부모님의 아동에 대한 양육 가치관, 자녀의 애착 정도가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만 3세 아동의 경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유아기의 무는 행동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폭력에 해당되므로 차후 학동기까지 무는 행동이 이어진다면, 학교폭력이라는 큰 문제로까지 연결되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에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부모교육 실시와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부모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소.개

BOOK: 누가 뭐라도 너는 소중한 존재



저자: 이수현

< 책 소개 >

아이를 위해 엄마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을 곧추세우는 일입니다. 아이에 대한 안쓰러운 슬픔은
엄마를 깊이 가라앉게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가지려 애쓰고 몸을 위해 운동을 하는 작가인
엄마는
결국 자신의 삶 중심에 우뚝 서고 자신의 경계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한 소중한 삶 속으로 들어가 작가가 내미는 희망을 나누어 봅시다.

< 작가 소개 > 이수현

아이들이 좋아서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영어교육학을 전공한 후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 중이다.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은 후 사직을 고민했으나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교직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운동, 요리, 글쓰기를 꾸준히 하며 무너지기 쉬운 여건 속에서도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소외된 학생,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도 행복할 수 있는 학교와 사회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채워가고 있다.

< 책 속에서 >

장애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숨기거나 감출 것도 아님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제는 아이들을 숨겼던 반쪽짜리 거짓된 내 모습을 청산하고 내 아이들을 당당하게 '앞에' 두기로 용기를 내었다.

내가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예쁜 모습만 보이는 것보다 고통과 아픔으로 온통 멍이 든 내 모습까지도 기꺼이 내어 보이며 나누는 삶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 가고 있다.

나처럼 용기를 내어 장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장애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 말고, 장애인의 삶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장애인과 가족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서점의 한 코너를 차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책은 자녀가 장애 진단을 받고 빛 한줄기 없는 캄캄한 방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부모들이 아무리 도서관을 뒤져도 '장애인을 낳아도 너도 행복할 수 있어.'라고 희망을 주는 책을 찾지 못한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된다. 장애에 대한 지식은 넘쳐 나지만 장애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책은 찾기 힘들다. 어쩌면 그만큼 장애인으로 또 장애인의 가족으로 사는 것이 자그마한 목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힘겹다는 뜻은 아닐까.

저자가 용기를 내어 쓴 글이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당신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연구소 프로그램 후기: 부모교육

용성아희뜰어린이집 원장 장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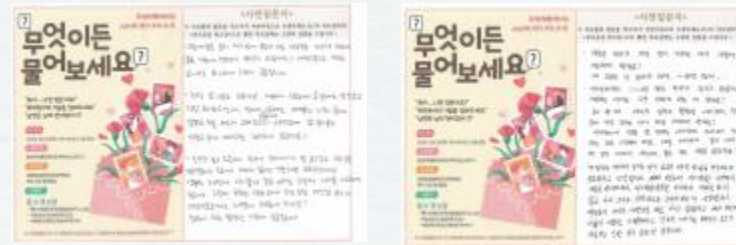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용성아희뜰어린이집’ 장주희 원장입니다. 봄바람 살살 부는 3월이면 많은 어린이집들이 새 학기를 맞아 들뜬 마음과 새로운 인연에 활기차면서도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 용성아희뜰어린이집은 지역적으로는 다소 외진 곳이고, 특히 군부대 안에 위치하고 있고 외부인 출입에 제한이 있다보니 조금은 폐쇄적일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나(자신, I)’를 돌보고, ‘너(타인, you)’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월 이곳에 부임한 이후 ‘한국아동발달연구소’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4월에는 ‘교직원 MBTI 해석강의’, 5월에는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저희 어린이집에 주어진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특히 ‘5월의 부모교육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저희 용성아희뜰어린이집 부모님들의 육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했던 이유는, 저희 어린이집은 평소 다양한 부모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고, 이에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정해 부모님을 초대하기보다 ‘용성아희뜰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열린 시간이 마련된다’는 의미에 포커스를 둔다면, 그것만으로도 무척이나 특별하고 든든한 시간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많은 학부모님들의 높은 만족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께 배부된 사전질문지에는 궁금함으로 가득한 질문들이 빼곡히 담겨있었습니다.



"언니 아니고 왕자님이라고 불러달라는 딸아이가 걱정이예요."

"훈육자를 정해서 교육시켜야 할까요?"

"둘째를 고민하는 남편, 설득방법을 알려주세요!"

"쪽쪽이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약속을 하고도 계속 말이 바뀌는 아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왜 남편들과 엄마들의 마음가짐이 다를까요?"



이렇듯 우리 용성아희들 부모님들의 질문을 접수받고 보니, 부모교육 시간이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시간인데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염려가 되었었는데요, 교육이 끝나고 보니 정말 이 '완벽한 2시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아동발달연구소로 보내드린 질문들에 소장님과 실장님의 사전분석을 기반으로 매 질문마다 상세한 답변PPT를 준비해오신 덕분에 질문한 부모님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게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아이에게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육아현실'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셔서 함께 듣는 부모님들마저도 공감되는 내용들로 가득한 그야말로, '모두 함께 풀어보는 육아 문제풀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2시간은 감동이었고, 또 명쾌했습니다.

부모교육이 끝난 후 최고의 질문을 주신 부모님들께 선물도 증정하고, 부모교육 수료식도 가지며 "앞으로도 자녀를 잘 키워보자!"는 부모님들과 어린이집, 연구소의 마음이 하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아동발달연구소가 모아맘보육재단 소속 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역할은 매우 큼니다. 다양한 직장어린이집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이해하며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상담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전문적으로 판단, 분석하고 피드백을 줍니다. 그런 연구소에서 실시한 부모교육이기 때문에 더욱 공감대가 형성되고, 좋은 만족도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5월 부모교육이 이루어진 후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개별 아동관찰과 부모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아동발달연구소와 함께하며 우리 용성 아희뜰어린이집 아이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매일 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이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학부모 평가 내용 >

- 혼자만 생각했던 육아의 내용을 공감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육아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자기반성합니다.ㅠㅠ
-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답답하고 후회되었던 부분이 어느 점이었는지 이해되고 해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연구소 소식



교사코칭



아동 관찰



부모교육



교사교육



MBTI 직원힐링프로그램 진행



MBTI프로그램



한국아동발달연구소 협력기관

서울 7개소

강남
소은희마인드피아의원/
해인상담심리연구소
서초
서울아동청소년상담센터/
이윤수상담연구소 이담소
마포
마포교육아종합지원센터
강서
마인드포유심리발달연구소
관악
남영심리상담센터

경기 6개소

성남
을지대학교 부설
을지아동발달지원센터
판교
MIND SPACE 아동청소년상담센터
수원
해담심리언어발달센터 /
광교중앙아동청소년상담센터
화성·동탄
남동탄심리언어발달센터
평택
휴먼마인드센터

인천 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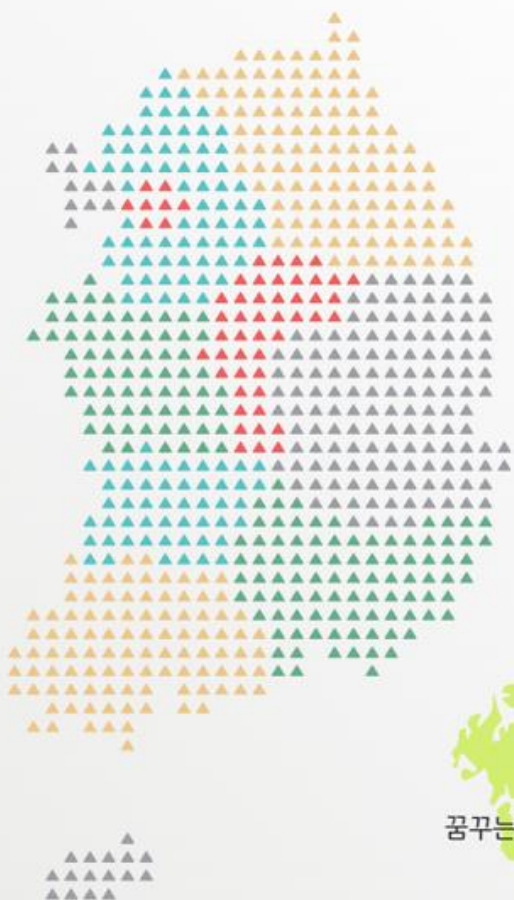
인천
홍은심리상담센터

충북 1개소

청주
행복한라파 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충남 1개소

세종
꿈꾸는별 아동청소년상담연구소



: 연구소 프로그램 비용 안내

대상	프로그램명		비회원 비용		회원 비용
어린이집	원방문관찰		20만원(60분)		15만원(60분)
	반방문관찰		25만원(90분)		20만원(90분)
	이슈관련 원방문관찰		30만원(120분)		25만원(120분)
아동	놀이치료		신청불가		8만원
	언어치료, 인지치료				7만원
	집단놀이치료				4만원
부모	부모상담		신청불가		8만원
	부모집단상담(10명~20명) 5회기		신청불가		1인 30만원 (5회기)
	부모교육		45만원		40만원
교직원	교직원상담		신청불가		6만원
	교직원힐링프로그램 (10명~) 1.워크시트 / 2.MBTI		45만원		40만원 (검사비 포함)
	아동발달심리사 (30시간)		60만원		40만원
	집단교사코칭 (주제중심)		신청불가		40만원
심리검사	언어평가		15만원		15만원
	주의력 검사		15만원		15만원
	기질검사	TCI / STS 6요인	2만원	해석강의 없음	2만원 (해석강의 포함)
	발달검사	K-CDI	2만원		2만원 (해석강의 포함)

: 닫는글 - 모든 결정은 **감정**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감정과 이성이 대결하게 되면
대부분 감정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승리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를 불러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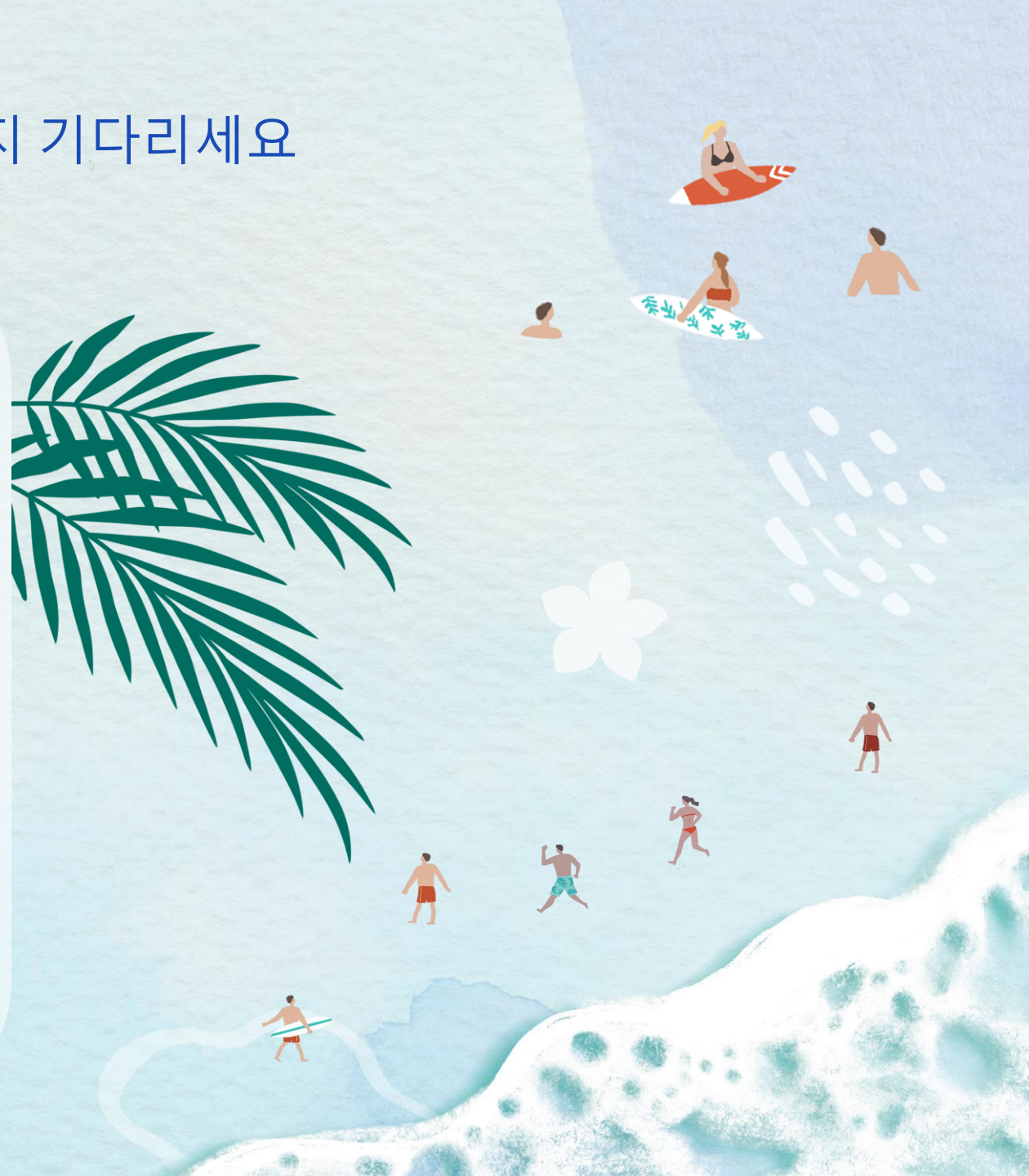
감정이 솟구치면
그냥 모두 흘러 보내세요

화날 땀 소리를 지르고,
슬플 땀 눈물을 흘리고,
흥겨울 땀 크게 웃으세요

그렇게 완전히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감정이 해소되고 나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냉정하고, 훌륭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발췌: 책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 -김정호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연구소 홈페이지

(kcdlab.or.kr)



연구소 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7. 2층 (모아맘 보육재단 내)



연구소 MAIL

kcdlab@daum.net



연구소 문의

02) 6338-1011



연구소 프로그램 신청방법

연구소 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와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소 소식지 가을호에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국아동발달연구소

